

워진 것이다. 행각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, 석재 기단 위에 3칸의 다포식 사모지붕으로 지어졌다.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 高宗即位四十年稱慶紀念碑¹⁹에 황제로서 원구에서 제사를 올린 일과 이제 기로소에 입사한다는 사실을 기념한다는 것이 적혀있다. 경운궁 앞의 원구와 조용하는 대한제국의 도시 기념물로서, 경운궁과 경복궁에서 백악의 능선으로 이어지는 도시경관 축을 만들어가고 있다.